

신품종 포도 『한아름』의 유통시장 평가 결과

□ 배경 및 필요성

- 개발된 신품종의 시장평가(유통인)를 통해 시장요구를 반영한 품종개발, 시장정보 수집 및 대응, 신품종 소개 및 홍보, 시장런칭 정보제공 등으로 신품종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 유도

□ 정보 내용

구 분	내 용
○ 시장평가	- 숙기 빠르고 외관품위, 품질이 기존 '거봉' 품종 대체 가능 - 수확시기 늦추고 당도를 올렸을 때 경도유지 가능
○ 육종시 고려사항	- 거봉 '자옥'에 비해 '탈립현상' 적으나 연구 데이터 보완 필요 *중도매인은 맛은 떨어져도 '탈립현상' 적은 것 선호
○ 생산자 고려사항	- 거봉보다 15일 정도 빠르나, 출하시기가 이르다고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적기수확 유도 - 시장성 향상을 위한 송이모양 고려
○ 시장전략	- (포장규격) 3송이 3kg 기준으로 변경하고 오픈형 상자로 출하하는 것 유리 - (출하기간) 일정량 지속적인 출하 및 홍보로 신품종 시장을 형성하는 것 필요

□ 파급효과

- 컨설팅 및 농업인의 영농 의사결정 자료로 제공하여 농가 안정성 확보

<세부 연구결과>

가. 시장평가(종합)

- 신품종 한아름 포도는 숙기가 빠르고 외관품위 및 품질이 기존 ‘거봉’ 품종을 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다는 평가
- * 농가에서 알맞은 숙기에 맞춰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
 - 재배실험을 통한 정확한 숙기에 대한 매뉴얼 필요
- 최적의 수확기를 맞추고 재배기술력을 갖춘다면 경쟁력은 충분
- 거봉에 비해 육질이 단단하고 경도도 우수하지만 당도와 과즙은 조금 떨어진다는 의견
- 수확시기를 늦춰서 당도를 올렸을 때도 지금의 경도가 유지만 된다면 거봉에 비해 경쟁력 있음

나. 육종시 고려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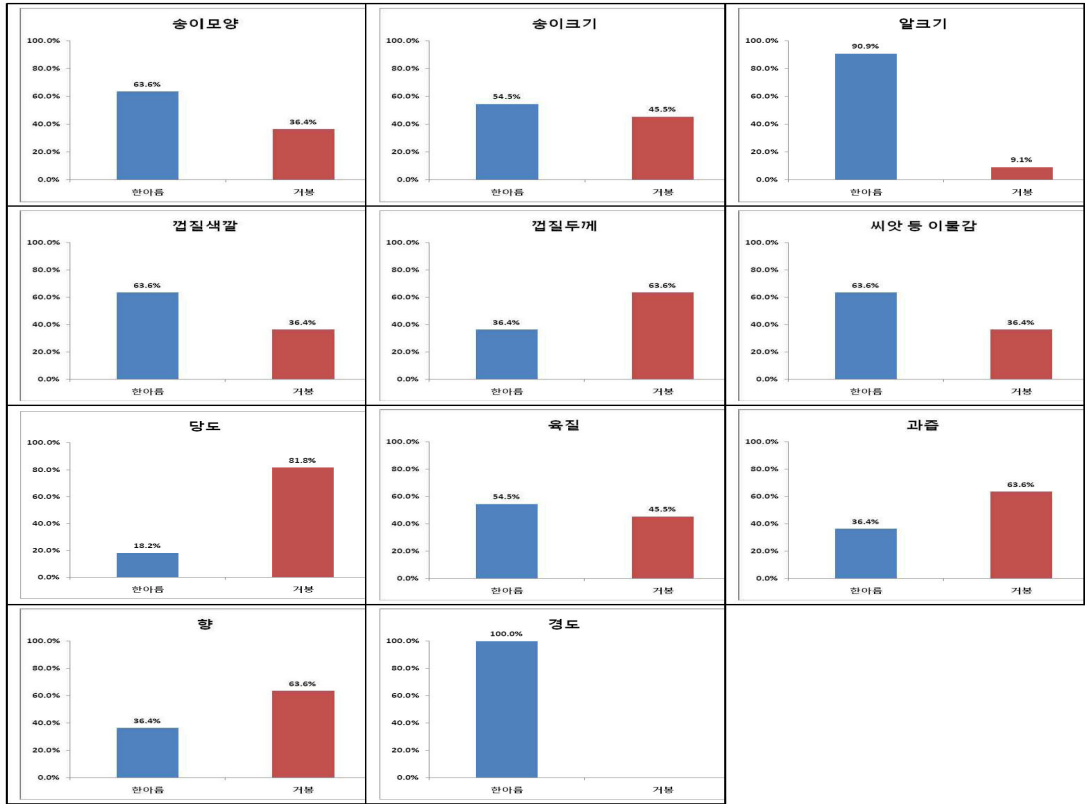
- 거봉의 경우 ‘탈립현상’ 으로 소비자로 불만이 있으며 거봉 ‘자옥’에 비해 ‘탈립현상’ 이 조금 덜 한 감은 있어 보이나, 연구소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조금 더 보완 요구
- * 중도매인들의 경우 맛이 조금 떨어져도 ‘탈립현상’이 적은 것을 선호
- 경도, 색깔 등 다 좋지만 산도가 조금 높은 점이 아쉽다는 의견

다. 생산시 고려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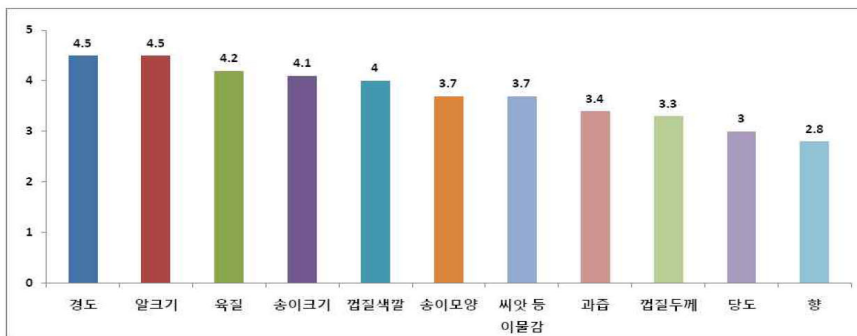
- 거봉보다 15일 정도 빠르나, 출하시기가 이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적기수확 유도
- 송이 모양이 듬성듬성해 보이고 있는데, 이러한 상태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특품 받기 어렵다는 의견

라. 유통인 평가

○ 품질평가 요인별 ‘한아름’ 과 ‘거봉’ 비교



○ 품질평가 요인별 ‘한아름’ 평가(5점 척도 기준)



작물연구과

담당자 : 김용복, 안용진, 신동호, 고재영, 김상수
(033)248 - 6043, power8946@korea.kr